

벤처투자, 하반기 회복세 가속... 2차전지·반도체 등 분야 확대

중기부, 3분기 투자액·펀드결성 동향
을 3·4분기까지 투자액 7조6874억
1.8조 → 2.7조 → 3.2조 등 증가세
“21·22년 제외시 역대최고 수준 예상”

벤처투자가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 조
짐을 보이고 있다.

투자가 일부 업종에 집중된 현상도
완화되고 있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3년 3분기 국내 벤처투자 및 펀드결
성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3·4
분기까지 벤처투자금액은 7조6874억원
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등과 신
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의 투자 실적을 모
두 포함한 액수다.

3분기까지 누적 벤처투자금액은
2019년 5조4463억원, 2020년 5조4110
억원이었던 것이 2021년(10조8679억

(벤처투자 현황)

(단위:억원, 건, 개사)

구분	'19 (1~3분기)	'20 (1~3분기)	'21 (1~3분기)	'22 (1~3분기)	'23 (1~3분기)
투자금액	54,463	54,110	108,679	102,126	76,874
창업투자회사 등	31,189	28,925	53,153	54,372	36,952
신기술금융사 등	23,274	25,185	55,526	47,754	39,922
투자건수	3,922	4,142	5,701	5,857	5,072
창업투자회사 등	2,744	2,780	3,886	4,116	3,438
신기술금융사 등	1,178	1,362	1,815	1,741	1,634
구분	'19 (전체)	'20 (전체)	'21 (전체)	'22 (전체)	'23 (전체)
투자금액	75,278	80,962	159,371	124,706	해당없음

원)과 2022년(10조2126억원)에는 10조
원을 훌쩍 넘었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 2021년과
2022년은 유동성 확대 등에 따라 투자
가이레적으로 급증했던 시기였다”면서
“올해 3분기까지 투자금액은 2020년의

연간 실적(약 8조1000억원)에 근접하
고 있는데 21·22년을 제외하면 올해 투
자액은 역대 최고 수준에 해당할 것으
로 보인다”고 전했다.

올해의 경우 분기별 벤처투자액은 1
조7822억(1분기)→2조7091억(2분기)

→3조1961억원(3분기) 등으로 점차 증
가세다. 신기술금융사를 제외한 창투자
사의 월별 투자실적도 1월 이후 꾸준히
늘고 있는 모습이다.

투자 분야도 다양화되고 있다.
2021년과 지난해의 경우 비대면, 바
이오 등 코로나 관련 분야에 투자가 집
중됐었다면 올해엔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다테크 및 국가첨단전략
산업 분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전기,
기계, 장비, ICT제조 등의 투자 비중이
늘고 있다.

한국의 벤처투자는 미국, 유럽 등 주
요 지역에 비해서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게 중기부의 분석이다.

올해 3분기 현재 투자액은 달러 기준
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했다. 반
면 같은 기간 미국은 -39%, 유럽은 -
47%, 이스라엘은 -62% 등 감소하는 등
한국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이다.
‘유럽’은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스

페인, 스웨덴 등 유럽 전 지역의 투자액
을 합산한 수치다.

한편, 올해 3분기까지의 벤처펀드 누
적결성액은 8조4482억원을 기록했다.

통상적으로 벤처펀드가 4분기에 가
장 활발하게 결성되고, 모태펀드 1차 정
시 출자사업에서 선정된 조합들의 결성
도 4분기 중 완료될 예정인 점 등을 고
려하면 연말까지 10조원을 넘어설 것이
라는게 중기부의 관측이다.

이영 장관은 “올해 3분기 벤처투자
실적은 시장이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가
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투자심리 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글로벌 CVC와의 협력을 강화해 우리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돕고, 스
타트업코리아펀드 및 민간 벤처모펀드
와 같은 벤처투자 금융재원을 두텁게
마련하는 등 필요한 정책수단을 총동원
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소기업계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통과돼야”

김기문 회장 등 5개 기업단체장
기재위원장에 ‘협조요청서’ 전달

중소기업계가 ‘기업승계 세법개정
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
의회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
요청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에선 김기문 중기중앙회
장을 비롯해 이정환 한국여성경제인협
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
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조
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등 중소
기업단체장 5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
해 ▲중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확
대(5→20년) ▲중여세 과세특례 저율과



(왼쪽부터)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김기문 중기중앙
회장,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이정환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세(10%) 구간확대(60억→300억원) ▲
사후관리업종변경 제한요건 완화(중분
류→대분류) 등 내용을 담은 기업승계
관련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
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회장은 “작년에 한도 확대 및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 기업승계 세제

가 획기적으로 개선됐으나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일부 보완이 필
요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업승
계 세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기업승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동반위
호텔신라와 ESG지원 협약
“지속가능한 공급망 조성”

동반성장위원회와 신라호텔이 지속
가능한 공급망 조성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동반위는 9일 호텔신라와 ‘2023년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
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호텔신라는 상생
협력기금을 출연하고 동반위의 중소기
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협력
중소기업의 맞춤형 ESG 지표를 선정
한 후 ESG 교육·진단·현장실사(컨설
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동반위는 컨설팅 후 ESG 지표 준수
율이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동반위 명의
의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한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 반부패·청렴 경영 강화한다

KAI, 감사 전문성 제고 ‘맞손’
내부통제시스템 강화할 것 기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한국항공
우주산업(KAI)과 함께 기관 청렴 경영
에 나선다.

중진공은 KAI와 9일 오전 경남 사천
KAI본사에서 ‘감사활동 및 반부패·청
렴정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정열 중진공 상임감
사, 황임동 KAI 윤리경영지원본부장
을 비롯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은 감사업무 전반에 대해 협력체
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자체감사기
구의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
됐다.

또한, 양 기관은 공공기관 감사 전

문성 강화 및 사회적 책무 이행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감사전문성 제고를
위한 협력채널 확대 ▲반부패·청렴문화
개선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상호
협력 ▲자체감사 사례 분석 및 감사 관
리 지표 공유를 통한 내부통제 강화활동
등을 추진한다.

박정열 중진공 상임감사는 “이번 업
무협약을 통해 자체감사기구의 전문
성 제고와 기관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높은 수준의 반부패·청렴체계 구축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국민에게 신
뢰받는 중진공으로 거듭나겠다”고 밝
혔다.

/김승호 기자

중견기업, 기술교류 등 중동 진출 속도

사우디, 카타르등과 합작사 설립

중견기업들의 중동 시장 진출에 속
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태경그룹, C
TR(씨티알) 등 회원사가 지난달 22일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사절단 공식 일정
인 ‘한-사우디아라비아 투자 포럼’ 등
에서 사우디·카타르 정부 및 현지 기업
과 합작 회사 설립, 기술 협력 및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 업무협약을 체결했
고 9일 밝혔다.

대통령 중동 경제사절단에는 총 24개
중견기업들이 참여했다.

기초 소재·무기 화학 전문 태경그룹
은 사우디아라비아 해수담수화청(SW
CC)과 고순도 마그네슘 생산을 위한 해
수 담수화 농축수 활용 업무협약을 체
결했다.

SPC그룹은 중동 프랜차이즈 분야
갈라디 브러더스그룹과 파리바게뜨
중동 진출을 위한 조인트벤처 설립 업
무협약을 체결하고 2조 달러 규모의 할
탈 시장 공략을 위해 10년 내에 중동 12
개 국가에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자동차 부품 전문 CTR은 사

우디아라비아 투자부(MISA)와 ‘친
환경 자동차 부품 합작 회사 설립을 위
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지에 자
동차 부품 공장 건립 등 친환경 모빌리
티 제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협력키
로 했다.

발전기자재 전문 비에이치아이는 사
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비에이치아이는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 ‘걸프
협력회의’ 6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발
전 플랜트 구축 프로젝트에 주요 발전
기자재 공급자로 참여한다.

중진련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사우
디아라비아 네옴시티를 비롯해 다양한
기타급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중동 시장
은 건설, 제조, 소재, 식품, 바이오 등 중
견기업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한
모든 산업 분야의 거대한 시장이자 기
술 혁신의 중요한 시험대”라면서 “다양
한 업종 중견기업간 협력 시너지를 제
고하고 신성장 동력 발굴 및 해외 진출
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국회는 물론 외국 정부
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유진그룹 동양, 재활용 IT 기자재 기부

데스크탑 등 비영리IT지원센터 기부

유진그룹 계열 동양이 사용하지 않는
IT 기자재들을 활용해 환경가치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동양은 최근 ESG사업의 일환으로
쓰지 않는 IT 기자재들을 비영리IT지
원센터에 기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한 물품은 데스크탑, 모
니터, 프린터 등으로 기존 IT 기자재
들은 비영리IT지원센터에서 점검 및
수리를 거쳐 새로운 IT 기기로 업사이
클링 됐다. 새롭게 만들어진 IT 기기들

은 비영리IT지원센터의 나눔IT기증프
로그램을 통해 공익단체에 전달할 예정
이다.

동양은 이번 기부활동으로 약 65t의
탄소저감에 기여했다.

동양 관계자는 “디지털 자원의 선순
환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건
강한 사회를 위해 힘써 주시는 공익 및
비영리 단체들을 지속해서 지원할 예
정”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ESG활동
들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힘쓰겠
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